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학교 적응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

Primary Study of Developing Program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Adaptation to School Violence(I)

천안대학교 기독교학부 상담전공
부 교수 송정아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부 교수 김영희

Dept. of Christian Counseling, Cheonan Univ.
Associate Professor: Song, Jung Ah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Kim, Yeong 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violence, peer's deviant behavior, schoo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of violence through a mass media, mediated by school violence,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maladjustment. The present study was the primary research of developing program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adaptation to school violence. On the basis of previous literature, the theoretical model was specified, estimated, and evaluated for adequacy of statistical fit.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974 adolescents drawn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eong-ju.

The model was supported by the data. Family violence, peer's deviant behavior, schoo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of violence through a mass media explained

* 본 연구는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KRF-99-1008)

directly the variance of school violence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maladjustment. The results shows that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maladjustment can be viewed as products of the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and school violence. Accessibility of violence through a mass media was strongly related to school violence. Also, school violence was the strongest risk factor in relation to adolescents' behavioral maladjustment while school environment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refor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should consider the psychological & behavioral components within the environmental context.

◆ 주요어: 가족폭력, 친구관계, 학교생활, 대중매체, 학교폭력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학교 안이나 주변의 폭력 또는 금품갈취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사례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에서는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폭력의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며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강정권, 2000; Gottfredson, 1997).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에 사는 학생들의 57%가 지난 1년 동안 학교 안·밖에서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도시에 사는 2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두렵다고 하고 있다(김준호, 1997).

더욱이 학교폭력을 겪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결과, 한 두 대 맞았거나 명들고 상처는 났지만 병원치료는 받지 않는 경상을 입은 경우가 33%,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는 18.1%, 입원이 6.5%, 사망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56.1%, 등교거부가 11%,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3.2%, 자살시도가

0.5%, 자살이 0.6%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폭력 예방재단, 1996).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은 두려움과 함께 좌절감, 무력감, 강한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학교폭력의 결과로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아지고, 학생의 집중력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복수심을 갖게 되거나, 학교 가기가 싫어지거나, 친구 대하기가 무섭고 싫어지거나,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보이거나, 아예 등교거부를 불러일으키거나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 저연령화 범죄화되면서 그 유형도 점차 집단화·조직화되고 있다(강정권, 2000). 또한 폭력행위가 일부 비행 청소년 외에 일반 학생들간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폭력이 급속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폭력의 유형도 종전에는 단순한 폭력과 금품갈취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집단따돌림(왕따)과 같은 집단적 형태의 다양한 심리적 폭력이나 지속적인 학대나 상해, 증가된 성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와 그 영향의 심각성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교폭력에 대하여 인과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김준호, 1997; 김종기, 1997; 임영식, 1998; 정지민, 1998). 이에 따라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대처방안보다는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심각성만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Mortimore(1995)는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학교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에서의 폭력접근이 효과적인 이유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Elliott, Hamburg, & Williams, 1998).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알아야 하고, 폭력행동의 위험성에 기인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폭력의 가해자나 희생자가 되는 것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인의 폭력은 목적 지향적 행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의 폭력은 발달적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Fagan & Wilkinson, 1999). 이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발달적 상황에서 보아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학교폭력에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상황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접근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의 변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생활환경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Hawkins, Farrington, & Cataland, 1999).

가족(Gottfredson, 1997; Rosen, 1998), 친구(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Parker & Seal, 1996), 학교(Boyce, 2000; Mortimore, 1995), 대중매체 환경(Cheung, 1997; Gibbs & Merighi, 1994)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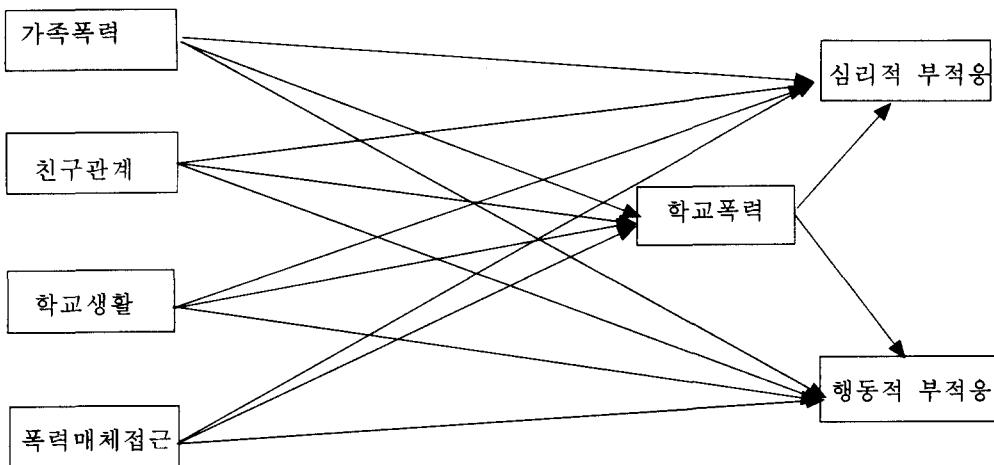
변수들간의 관련성만을 살펴본 연구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이 생활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연구 안에서 살펴 본 연구가 전혀 없다. 즉,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학교폭력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없어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발달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다변인 모델을 통하여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규명하여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발달적 맥락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학교 적용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그림 1>의 다변인 모델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 1) 가족폭력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친구관계는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3) 학교생활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5)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행동적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최근 서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접근 방안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발달 욕구에서 이 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반응의 하나로써 이해되어지면서 학교 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의 변화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가족, 친구, 학교, 대중매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수 있다.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Hawkins et al.,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적용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으로 개념화하였고, 학교폭력이 가족, 친구, 학교, 대중매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관한 국내연구는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된 변수에 대한 고찰은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였다. 청소년 발달 자체가 그들이 접하는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서구의 선행연구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기초적 이론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가족폭력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은 가족의 구조(강종원, 2000), 부모의 훈육과 통제의 부재(Erel, Margolin, & John, 1998),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나 감독의 부족(Price & Everett, 1997)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 행동에 대한 명백한 기대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나 감시를 못할 때, 혹은 극도로 심하게 체벌하거나 비일관적인 체벌을 할 때 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진다(Yoshikawa, 1994). 특히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나 방관적으로 키워진 부모는 자녀를 폭력적으로 기를 경향이 높고, 이는 후에 자녀의 폭력행위에 원인이 될 확률이 높다(Widom, 1989).

Cerezo(1998)는 최근 메타분석에서 가족의 구조나 부모의 훈육이나 감독보다는 부모가 폭력적이고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자체가 청소년의 폭력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즉, 가정에서 공격성과 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해결할 때 폭력을 더 사용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경우

폭력의 사용에 대한 경계심이 적었다. Ginsberg와 Loffredo(1993)는 가정에서 폭력접근을 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폭력을 통해 지배하는 것을 부모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가정에서 폭력접근을 한 청소년들은 누군가 자신을 해쳤을 때는 상대방에게 되돌아 쳐야 한다는 원칙이 만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 상황을 만들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떨어트리거나, 싸움을 피하는 자체가 터프가이(tough guy)의 모습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간의 폭력 중 부모간의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어 청소년의 적응과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alzinger, Feldman, Hammer, & Rosario, 1993). 즉, 부모간의 폭력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청소년들은 공격성, 충동성,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가출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폭력 상황을 자주 관찰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성과 충동성을 더 내 보일 수 있다.

Campbell(1993)은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신체적 공격을 더 받은 경우 폭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김준호(1997)가 지적한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폭력접근을 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부모나 가족의 피해자가 되었다가 또래집단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친구관계와 학교폭력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적 적응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Berndt(1992)는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되지만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비행행동에 관련될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비행이나 일탈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의 행동적 부적응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청소년에게 공격성, 충동성, 적대감과 같은 불안정한 정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영희·김운주·박경옥·이희숙·김창기, 2000; Simons, Wu, Cogner, & Lorentz, 1994).

최근 연구자들은 일탈이나 비행의 문제를 보인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보다 친구의 수가 더 많고, 친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친구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와 같이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artup, 1996). 더욱이 청소년들은 공통적인 관심과 활동을 가질 때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의 친구를 갖고 있는가가 친밀한 친구관계를 갖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폭력을 증가시키는 자극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또한 비행친구를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도 지배적-순종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친구사이에 가질 수 있는 친밀감이나 정서적 지지보다는 갈등이나 강압적인 폭력이 친구사이에 존재한다(Vitaro et al., 1997; Windle, 1994). 특히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거나 폭력적인 친구들을 선택할 경향이 높아 폭력에 가담한 친구들과 연루되거나 폭력행동에 관여할 경향이 높다(Cair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epy, 1988).

아동기에는 친구와의 놀이 형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은 비구조화된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에 대인관계적 활동 즉, 친구들과 몰려다니거나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비행친구집단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환경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비행집단은 위험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가담하거나, 폭력

이 그 상황에서 최대의 해결방안이라고 여기는 폭력의 기능적 역할에 강점을 두거나, 폭력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Felson과 Tedeschi(1995)가 제시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은 최고최대의 원칙(이득을 최대한으로 하고 비_minus;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과 만족의 원칙(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는 결정)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폭력행동을 통하여 터프함(toughness)을 보여주는 것이 친구사이의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거나, 같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상받는 방식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3.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심리적 환경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인정받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재미있기를 원한다(Glasser, 1988).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기 보다는 성인들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시켜 학교생활의 적용 자체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학습능력 변수를 통제한다 하더라고 학교성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9).

학교폭력의 가해와도 학교생활의 부적용, 특히 성적과 가해와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준호, 1997). 즉, 학교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무단결석이 잦아지게 되면서 학교생활에서 점차 고립되게 된다. 학교생활에서 고립되면 될수록 이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끼리 합류하면서 비행이나 일탈 또는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에 빠져드는 것이다.

Cogner와 Simons(1998)는 폭력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감독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

고,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처벌에 대항할 때 주로 폭력을 사용하며, 친구들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Blechman, Prinz, & Dumas(1995)는 학교 폭력 행동은 가족폭력과도 상관이 높지만 학교에서 부정적인 학습환경을 경험하면서 친구관계를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공격적 행동은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역기능적 가족의 상호작용, 문제해결력의 부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학교에서 학습하지 못하면 성인기 때에도 폭력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폭력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도덕적 행동이나 지적활동을 하는 친구들에 의해 고립되어 있어 폭력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폭력행동을 제지하는 준거집단을 상실함과 더불어 교사의 통제나 훈육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학교생활의 부적용이 학교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4.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과 학교폭력

청소년기는 그 발달특성에 있어서 가족이나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대중매체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Larson, 1995). 대중매체의 폭력접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폭력물이나 성행동을 많이 보면 볼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TV에서 모방한 공격적인 행동과 성행동을 더 많이 하며, 헤비메탈이나 록 음악과 같은 공격적인 음악을 듣는 동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공격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rnett, Larson, & Offer, 1995). 또한 청소년이 과도하게 대중매체에 의존할 경우 신경증과 같은 내면적 문제를 일으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aviv, 1996).

Felson(1996)은 폭력을 자체가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자체를 허용하는 지지효과(sponsor effect)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대중매체의 폭력장면은 청소년들에게 터프(tough)한 모습이나 스타일을 모방하게 해주고,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폭력을 지지해 주고 있다(Connor, 1995). 대중매체의 지지효과가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내면화되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한 계속적인 폭력접근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예측하는데 다른 어떤 관련 요인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heung, 1997; Huesmann & Miller, 1994).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 자체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나 폭력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5.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따돌림, 육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포함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말한다. 학교 주변에서 불량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싸움을 하는 등 학교 주변의 폭력은 비단 요즈음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서 금품을 갈취 당한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이나 해외유학을 고려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이와 같이 위험수위에 이르게 된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의 비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비행이나 일탈행동과 같은 행동적 부적응으로 나타나 있다(Koduluboy & Evenrud, 1993; O'Donnell et al., 1995). 그러나 Pallone과 Hennessy(1993)는 청소년들의 폭력은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로 인해 나타나는데 폭력의 기저에 있는 내적인 요소, 즉, 심리적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

은 미래보다는 현재만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주요 기제가 되어 폭력행동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사회화 연구가 외면적 문제행동에 치우쳐 왔다가 최근 문제행동을 일으킬 상황만 일어난다면 외면적으로 얼마든지 돌출할 수 있는 내면적 문제행동에도 역점을 두어 이 두 문제행동을 분류해서 연구하는 맥락과 일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끊임없이 청소년의 외적 표출행동이 공격성이나 충동성 같은 행동적 문제가 내면적 문제보다 학교폭력과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강동욱·김희배, 2000; 임영식, 1998; 조성호, 2000). 그러나 이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한 모델 안에서 살펴본 연구가 없어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학교적응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므로 학교폭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관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LISREL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족, 친구, 학교, 대중매체 환경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관련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는 한 모델 안에서 관련 변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아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접근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과 분석

표집 설계는 성과 연령(중학교·고등학교)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청주시 소재 중학교 2 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임시부담이 적고 학교적응이 원만한 2학년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담임교사의 지도하

에 학생들이 질문지를 완성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다.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설문지를 본조사에 이용하였다. 본조사 기간은 1999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1,076부였으나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설문지 부수는 974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은 남학생이 446명(45.8%), 여학생이 528명(54.2%)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학교는 중학교가 389명(39.9%), 고등학교가 585명(60.1%)으로 고등학

교의 학생의 수가 더 많은데 이는 실업계와 인문계 학생을 고려하여 선정한 결과이다.

2. 측정도구

1) 가족폭력

가족폭력은 Hudson(1982)의 Index of Family Relations(IFR)를 번안 수정하여 가족 안에서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폭력의 정도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가족간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신체적 폭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446(45.8)	종교	기독교	328(33.8)
	녀	528(54.2)		천주교	84(8.7)
	계	974(100)		불교	217(22.4)
학교	중학교	389(39.9)		무교	319(32.9)
	고등학교	585(60.1)		기타	22(2.3)
	계	974(100)		계	970(100)
부모님	양친부모 모두 계심	915(94.1)	한 달 용돈	10000원 이하	174(19.7)
	아버님만 계심	14(1.4)		11000원~20000원이하	274(31.1)
	어머니만 계심	41(4.2)		21000원~30000원이하	223(25.3)
	두 분 모두 안 계심	2(.2)		31000원 이상	211(23.9)
	계	972(100)		계	882(100)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72(18.1)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9(30.1)
	고등학교 졸업	500(52.5)		고등학교 졸업	550(57.3)
	대학교 졸업 이상	280(29.4)		대학교 졸업 이상	121(12.6)
	계	952(100)		계	960(100)
아버지 직업	무직/가정주부	16(1.7)	어머니 직업	무직/가정주부	561(59.4)
	단순 노무직	91(9.9)		단순 노무직	10(1.1)
	생산직/기술직	48(5.2)		생산직/기술직	24(2.5)
	농수산업	79(8.6)		농수산업	37(3.9)
	판매/서비스직	290(31.6)		판매/서비스직	206(21.8)
	관리직	318(34.6)		관리직	92(9.7)
	전문직	77(8.4)		전문직	14(1.5)
	계	919(100)		계	944(100)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폭력의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값은 .87이다.

2) 친구관계

청소년이 갖는 친구관계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친구관계를 Sharabany's Intimacy Scale(Sharabany et al., 1981)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내 친구들은 남을 협박하거나 싸움을 잘 전다”, “내 친구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내 친구들은 같이 모이면 흡연이나 음주를 한다”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활동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관계를 포함한다.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Cronbach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

학교생활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은 김영희 등(2000)이 청소년의 일탈행동 연구에 이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나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학교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없다”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등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내적합치도 값인 Cronbach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4)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은 선행연구(Raviv, 1996)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고안하여 측정하였다. 폭력물을 좋아하는 정도나 폭력물에 나오는 주인공을 모방하고 싶은 심리나 폭력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의 접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값은 .87이었다.

5)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불안증, 공격성, 우울증, 적대감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SCL-R-90(Derogatis et al., 1976)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SCR-90-R은 지난 6개월 동안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총 3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은 Simons, Johnson, & Cogner(1994)가 청소년을 연구하는데 사용하였던 행동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평가하였다. 청소년은 지난 해 동안 어느 정도(1=전혀 없다, 4 = 6번 이상 그런 일이 발생했다까지) 비사회적 행동을 하였는지를 응답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을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인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0이었다.

7)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정지민·조기원(1998)의 청소년 사회적응 척도 중 가해폭력에 관한 내용만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은 지난해 동안 같은 또래나 후배에게 돈이나 물건 같은 금품을 뺏은 적이 있는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래나 후배를 때린 적이 있는지, 집단으로 폭행한 적이 있는지, 패싸움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집단 따돌림을 한 적이 있는지를 응답함으로써 폭력의 가해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로 전혀없다의 1점에서 6번 이상의 4점까지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과 LISREL 8(Joreskog & Sorbom, 199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특성은 기초통계자료를 산출하였으며,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변수의 tolerance는 0.4-0.9의 크기를 보임으로써 전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관관계의 범위는 .08에서 .57이었으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LISREL 8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추정치(parameter)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표 3> 그리고 <그림 2>와 같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가족갈등($\gamma = .06$), 친구관계($\gamma = .14$), 학교생활($\gamma = .22$),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gamma = .24$)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가족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친구와 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학교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할수록,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물을 많이 접촉할수록 학교폭력을 할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가족폭력, 친구관계, 학교생활,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에 의해 32% 설명된다.

<표 2>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가족폭력	친구관계	학교생활	대중매체의 폭력접근	심리적 부적응	행동적 부적응	학교폭력
가족폭력							
친구관계	.01						
학교생활	.31***	.16***					
대중매체의 폭력접근	.25***	.08*	.30***				
심리적 부적응	.43***	.09*	.50***	.41***			
행동적 부적응	.28***	.12***	.34***	.50***	.35***		
학교폭력	.19***	.12***	.28***	.33***	.29***	.57***	
평균	1.67	3.15	2.84	1.94	2.21	1.30	1.23
표준편차	.55	.47	.66	.87	.70	.37	.34

IV. 결과 및 해석

초기 이론적 모형을 분석한 χ^2 값이 .012로 모델의 적합도가 거의 완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생활환경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매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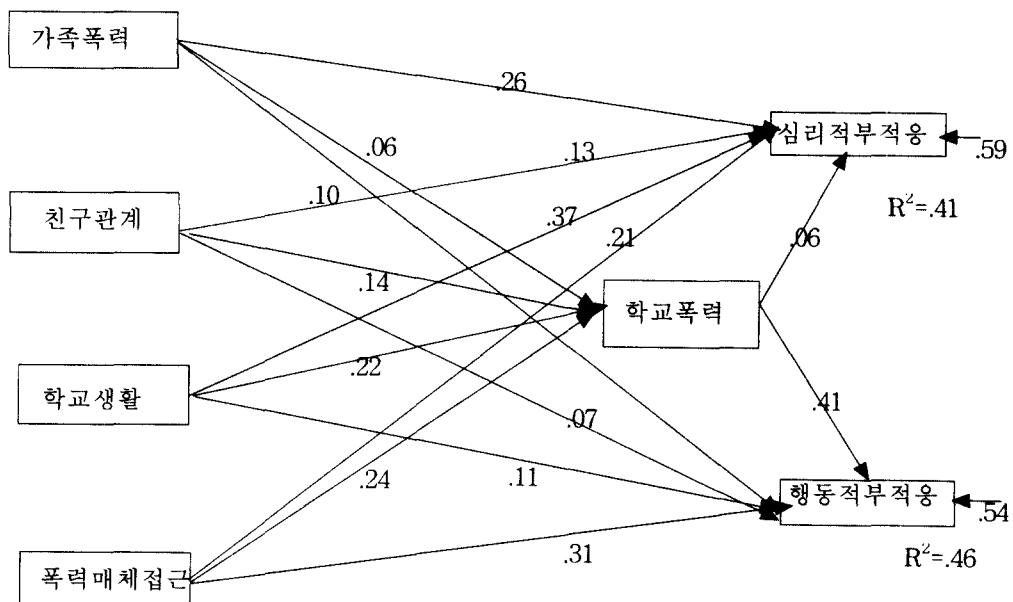
청소년의 학교 폭력과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관련된 각 변인의 직접·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본 것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은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매체 접근이고, 그 다음이 학교 생활, 친구관계, 가족폭력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친구의 비행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량을 가지고 그 다음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라는 임영식

〈표 3〉 경로모형의 다중 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학교폭력	심리적 부적응	행동적 부적응
가족폭력	.06	.26	.10
친구관계	.14	.13	.07
학교생활	.22	.37	.11
폭력매체접근	.24	.21	.31
학교폭력	.	.06	.41
R ²	.32	.41	.46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O'Donnell et al., 1995). 즉, 폭력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가출이나 외박, 놀음이나 도벽, 환각제 사용, 학교에서 징계를 당하는 행동적 부적응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개인적 행동변화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Fagan과 Wilkinson(1999)은 청소년들은 폭력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달성하고 유지시키고, 물질을 소유하며, 세력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며, 위험행동을 택하면



〈그림 2〉 학교폭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매체 접근과 학교생활이 학교폭력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 Cheung(1997)과 Huesman & Miller(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보다는 ($\beta = .06$) 행동적 부적응 ($\beta = .41$)에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이는 폭력행동이 일탈이나 비행행동의 가장 큰

서 충동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폭력행동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 할 수록 그들은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uisingsa et al., 1995).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이 비행이나 일탈과 같은 부적응 행동의 기저가 될 때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행동에 대

〈표 4〉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변인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종속 변인
가족폭력	.06	.	.06	학교폭력
	.26	.02	.28	심리적 부적응
	.10	.01	.11	행동적 부적응
친구관계	.14	.	.14	학교폭력
	.13	.02	.15	심리적 부적응
	.07	.01	.08	행동적 부적응
학교생활	.22	.	.22	학교폭력
	.37	.08	.45	심리적 부적응
	.11	.02	.13	행동적 부적응
폭력매체접근	.24	.	.24	학교폭력
	.21	.05	.26	심리적 부적응
	.31	.07	.38	행동적 부적응
학교폭력	.06	.	.06	심리적 부적응
	.41	.	.41	행동적 부적응

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더욱 확증시켜 주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은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기저가 되어 폭력매체 접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청소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대중매체라고 주장한 Strasburger(1995)의 주장을 입증해주면서, 최근 영상매체를 통한 메시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연구결과이다.

학교생활($\gamma = .22$)은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gamma = .24$)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의 차가 매우 적어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의 기저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환경의 개선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개입 접근의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Mayer(1995)는 학교가 학업적 임무를 명백히 수행하고, 명백하게 비폭력적인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규범을 가

지며, 일관적이고 공평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지지 분위기를 가지면 학교의 혼란을 줄이게 되어 학생들의 폭력행동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도와 학업성취력을 높이거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폭력행동이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는 학생들의 폭력행동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학교를 배움의 장소로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폭력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Brewer et al., 1995). 더욱이 폭력행동은 12살에서 18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가 21살이 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게 되므로 폭력행동의 예방교육은 학교가 최적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Hawkins et al., 1999).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학교생활($\beta = .37$, $p < .001$), 가족폭력($\beta = .26$, $p < .001$),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beta = .24$, $p < .001$), 친구관계($\beta = .13$,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공격성, 불안, 우울,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인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환경으로 본 결과(Collins & Repinski, 1996)와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beta = .31$, $p<.001$), 학교생활($\beta = .11$, $p<.001$), 가족폭력($\beta = .10$, $p<.001$), 친구관계($\beta = .0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이 접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관여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소년이 접하는 일상생활 환경은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접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보다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심리적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적용에 대한 친구환경과 가족환경의 상대적 중요성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는 가족환경보다 친구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인 가족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비슷한 배경과 비슷한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과 집합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아 가족환경과 친구환경은 그 역할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연구는 친구환경과 가족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방적 인과관계를 가질 때 폭력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다면인 모델을 통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생활환경 요인이 학교폭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가족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생활을 부정적 태도와 행동으로 할수록,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물을 많이 접할수록 학교폭력을 가할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2.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

인은 폭력매체 접근,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족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매체 접근과 학교생활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생활환경 중 가장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3.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학교생활, 가족폭력, 폭력 매체 접근, 친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용에 가장 관련이 많은 요인은 학교생활이다.

4.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폭력매체 접근, 학교생활, 가족폭력, 친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행동문제에는 폭력매체 접근과 학교생활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행동적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이 행동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족폭력, 친구관계, 학교폭력, 폭력매체 접근이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 행동을 예측하는데 학교폭력이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학교 적응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접근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이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개인적 행동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

거나 법적 제재를 받은 청소년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행동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소개할 자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생활환경 중 폭력매체 접근이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적용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의 폭력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4. 학교환경도 폭력매체 접근과 비슷한 정도로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학생들이 친사회적 행동이나 협동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주는 내용, 또한 교사들의 정서적 지지가 포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환경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은 심리적 부적응보다 학교폭력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행동적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0월 12일

【참 고 문 헌】

- 강동욱 · 김희배(2000). 학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8(4), 225-244.
 강정권(200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 김운주 · 박경옥 · 이희숙 · 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70.

김종기(1997).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 오늘의 청소년.

김준호(1997). 학생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행 청소년의 지도대책. *한국범죄방지재단 정책세미나*.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정지민(1998). 청소년 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교적용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호(2000).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Arnett, J. J., Larson, R., & Offer, D. (1995). Beyond effects: Adolescents as active media us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11-533.

Berndt, T.J.(1992). Friendship and friends' influence in adolesc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56-159.

Boyce, B.A.(2000). School violence: The case of Jack the knif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1, 31-33.

Blechman, E.A., Prinz, R.J., & Dumas, J.E.(1995). Coping, competence, and aggression prevention.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 211-232.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M.(2000). Devian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2), 173-189.

Cairns, R.B., Cairns, B.D., Neckerman, H.J., Gest, S., & Gariepy, J.L.(1988). Peer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Social support or social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30.

Campbell, A.(1993). *Men, women, and aggression*. New York: Basic Books.

Cerezo, M.A.(1998). Parent-child conflict, coercive family interaction, and physical child abuse. In R.C.A. Klein(E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 tives on family violence.(pp 17-40). New York: Routledge.
- Cheung, Y.W.(1997). Family, school, peer, and media predictors of adolescent deviant behavior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5), 569-596.
- Derogatis, L., Lipman, R., Uhlenhuth, E., & Coti, L. (1976).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HSCL): A self report symptom inventory. *Behavioral Science* 19, 1-13.
- Dodge, K.A., Pettit, G.G., Bates, J.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 Elliott, D.S., Hamburg, B., & Williams, K.R.(1999).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An overview. In S.G. Millstein, A.C. Peterson, & E.O. Nightingale(Eds.), *School violence*(pp 3-28).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Erel, O., Margolin, G., & John, R.S.(1998). Observed sibling interaction: Links with the marital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88-298.
- Fagan, J., & Wilkinson, D.L.(1999). Social contexts and functions of adolescent violence. In S.G. Millstein, A.C. Peterson, & E.O. Nightingale (Eds.), *School violence*(pp 55-93).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Felson, R.B.(1996). Mass media effects on violent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03-128.
- Felson, R., & Tedeschi, J.T.(1995). A social interactionist approach to violence: Cross-cultural applications. In R.B. Ruback & N.A. Weiner (Eds.), *Interpersonal violent behavior: Social and cultural aspects*. New York: Springer.
- Gibbs, J.T., & Merighi, J.R.(1994). Young black males: Marginality, masculinity and criminality. In T. Newburn & E.A. Stanko(Eds.), *Men, masculinities and crime: Just boys doing business?*(pp. 64-80). London: Routledge.
- Gottfredson, D.(1997). School-based crime prevention. In L. Sherman, D. Gottfredson, D. MacKenzie, J. Eck, P. Ruter, & S. Bushway(Eds.).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pp 1-7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Hawkins, J.D., Farrington, D.P., & Cataland, R.F. (1999). Reducing violence through the schools. In S.G. Millstein, A.C. Peterson, & E.O. Nightingale(Eds.), *School violence*(pp 189-216).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up, W.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udson, W.W. (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The Dorsey Press.
- Huessmann, L.R., & Miller, L.(1994). Long-term effects of repeated media exposure to violence in childhood. In L.R. Huessmann(Ed.), *Aggressive behaviors: Current perspectives*(pp. 153-186). New York: Plenum.
- Huizinga, D., Loeber, R., & Thornberry, T.P.(1995). The prevention of serious delinquency and violence: Implications from the program of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rrelates of delinquency. In J.C. Howell, B. Krisberg, J.D. Hawkins, & J.J. Wilson(Eds.), *Sourcebook on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pp 213-237). Thousand Oaks, CA: Sage.
- Joreskog, K.G., & Sorbom, D.(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odluboy, D.W., & Evenrud, L.A.(1993). School-based interventions: Best practices and critical

- issues. In A.P. Goldstein & C.R. Huff(Eds.), *The gang intervention handbook*(pp. 257-299).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Larson, R. (1995). Secrets in the bedroom: Adolescent' private use of medi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35-55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9). Juvenile aggression at home and at school. In S.G. Millstein, A.C. Peterson, & E.O. Nightingale (Eds.), *School violence*(pp 94-187).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O'Donnell, J., Hawkins, J.D., & Abbott, R.D.(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29-537.
- Pallon, N.J., & Hennessy, J.J.(1993). Tinderbox criminal violence: Neurogenic impulsivity, risk-taking, and the phenomenology of rational choice. In R.V. Clarke & M. Felson(Eds.),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ume 5(pp. 127-156).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 Parker, J.G., & Seal, J.(1996). Forming, losing, renewing, and replacing friendships: Applying temporal parameters to the assessment of children's friendship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67, 2248-2268.
- Raviv, A.(1996). Adolescent idolization of pop singers: Causes, expression, and rel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31-650.
- Rosen, K.H.(1998). The family roots of aggression and violence. In L. L'Abate(Ed.), *Family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Salzinger, S., Feldman, R.S., Hammer, M., & Rosario, M.(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 169-187.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Siomons, R.L., Johnson, C., & Cogner, R.D.(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91-607.
- Simons, R.L., Wu, C., Conger, R.D., & Lorenz, F.O. (1994). Two routes to delinquent behavior: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the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32, 247-275.
- Vitaro, F., Tremblay, R.E., Kerr, M., Pagani, L., Bukowski, W.M.(1997). Disruptiveness, friends'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 A test of two competing models of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8, 676-689.
- Windle, M.(1994). A study of friendship characteristics and problem behavior among middle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1764-1777.
- Widom, C.S.(1989). Child abuse, neglect, and adult behavior: Research design and findings on criminality, violence, and child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355-367.
- Yoshikawa, H.(1994). Prevention as cumulative protection: Effects of early family support and education on chronic delinquency and its risks. *Psychological Bulletin* 115, 28-54.